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지도력 구축과 관련하여...

- ▶ 수신: 34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 ▶ 발신: 16대 총여학생회
- ▶ 용도: 중앙운영위 내에서 토론해 봅시다.

1. 80년대 90년대 기간 여학생운동의 평가

♣ 70년대 후반에서 80년 초기의 시기

이 시기는 여학생운동이 태동하고 전 대학에 여학생운동 조직이 생기는 시기이다.

독자적인 여학생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70년대 후반에서부터이다. 78,79년 당시의 학생운동은 유신치하에서 비밀스럽게 유지되던 이른바 언더사회과학 학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엄격한 보안을 생명으로 하던 지하 사회과학학회는 여학생들에게는 철저한 금단의 영역이었다. 그것은 학교별로 여학생 수가 적은 탓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 직접 그리고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남학생이 감옥에 가면 약혼자를 빙자하여 감옥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나름대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사회과학 학회의 닫혀진 문은 커다란 충격이자 좌절이었다. 한마디로 학회의 분위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 엄혹한 실천을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녀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풀어져 학회의 장래를 망치고 만다는 게 여학생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사회과학학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수 없는 좌절과 모멸을 겪어야 했던 몇몇 여학생들의 주도하에 학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진보적이라는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후진적인 남녀차별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런 만큼 여학생들의 의식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역할을 맡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진정으로 사회적 의식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그런데 남녀차별의 이데올로기는 다만 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입생들은 남녀혼성 씨클은 선호하고 여학생회에는 가입하기를 꺼리고 남학생들의 비방 역시 여학생들이 가입을 꺼리는데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급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과 민족민주운동내부에서 공동의 적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남성들의 보수반동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분열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때 여성학의 경향은 양비론, 이중체계론적인 경향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여성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를 펴내는 등 여학생학회의 좁은 틀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단과대학 여학생회로 포괄해 내면서 여학생들의 입지가 훨씬 강화되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해내면서 82년 이후 점차 학회들이 여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고 오히려 군대문제 등으로 인한 단절이 없어서 여학생들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84년 이후 학원자율화 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이후의 활동은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학생회 단위로 참여하는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톰보이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등을 통하여 사회

적인 여론을 서울지역 여대생 중심으로 펼쳐졌다. 70년 후반부터 80년대까지 큰 흐름으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 모색(자유주의적인 관점, 급진적인 관점, 맑스주의적인 관점 등으로 각각을 연구한 이후에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여성억압의 근원을 찾는 맑스주의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받아들였다.)의 과정이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간부들의 모습은 여성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주체의 결의가 매우 높았고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 나가려는 의지가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운동 속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학생운동의 급진적이고 봉건적인 풍토가 여성활동가들의 사상적 한계로 인해 전체 운동 속에서 여학생운동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배척하고 무관심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풍토가 교양, 설득을 통하여 극복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부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경향을 낳게 되고 소위 운동권 여학생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은 여학우대중과 여활동가들 사이에 괴리감, 불신감등의 갈등을 심화하게 된다. 개괄적으로 이 시기의 여학생운동은 소수 활동가 중심이었고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가장 큰 한계를 갖게 되며 여성운동을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사상적으로 확고히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급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

◆ 86년에서 88년까지

여학생운동의 내용성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비합법 씨클주의 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당시의 주요한 구호로는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 등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 개정 등 민주헌법에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한편으로는 반미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관심이 선진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고 반북의식을 깨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군부독재와 변혁운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86년 여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많은 여학간부들이 구속되어 남아있는 간부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단을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 대책위를 세워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부천 검찰청에 농성과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 속에서 여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중적 토대에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쟁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여학생운동 또한 연대운동 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교훈 속에서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가 건설되게 되었다. 88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매춘올림픽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것은 미국 내에 잡지의 한국인 모독 기사에 분개한 재미교포의 편지가 오면서 여대협, 여성단체들이 공동의 투쟁을 벌였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을 벌렸다.

87년 이후에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여학생회 건설이 형식적인 선거를 치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학우들 속에 뿌리박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통해 대중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88년에는 이러한 87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논의 속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여학생회 건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소규모의 학습모임에서 학우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실천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고 여학생회의 활동을 강화하였다는 것 또한 진일보한 모습이었으며 여학생회 활동이 확산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자주성에 기반한 사업을 벌여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사와 실무로 그쳐버리고 오히려 형성되기 시작하는 대중의 모임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 89년부터 92년 말까지

이 시기는 여학생운동의 내용적 강화와 조직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내고자 주력하게 되는 시기이다. 드디어 전국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국 총여

학생회장단 약 70여명이 모여서 전여대협 건준위를 구성하고 평양축전에 제7센터에 참여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는 기간에서 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방법과 조직건설에 주력하게 되는 시기이다.

89년은 전여대협 건준위를 결성이라는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 자주화의 이념이 확산되고 사람중심의 조직관이 제기되면서 대중운동을 통한 여학생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89년 취업차별 철폐투쟁은 정치투쟁중심의 선도투쟁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중적인 이해와 요구를 모아보려는 모범적인 투쟁이었으나 상층과 기층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학우 대중과 함께 벌여내려는 투쟁이었다기보다는 상층 중심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89년 이후에는 기간의 다양한 실천과 투쟁 속에서 얻어진 한계와 성과들을 통해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대중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명제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지게 된다. 또한 88년 89년을 거쳐 여학생운동의 조직적인 성과물로서 각 지역 총여학생회연대기구인 지역 여대협이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대협은 지역차원으로 여학생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출발하였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체 학생운동 속에서 변혁운동의 3대 주력군 운동이 운동의 근거지로부터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학생운동은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을 이루는 것을 조직적인 과제로 삼는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새로운 기치를 들게 된다. 자주적 학생회노선에 기반하면서 여학생운동에서도 자주적 학생회를 더욱 풍부히 고민하는 자주적 여학생회노선이 제기된다. 학생운동 전반적으로는 기층과 사업단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여학생운동 속에서도 대중노선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여학생회 모임이 다양하게 건설되면서 의식화의 내용도 이전의 관성적인 사회과학 학습위주만이 아니라 여학우들로 하여금 식민지 여성으로서 자기존재를 인식하고 여학생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92년은 보은 진관 투쟁은 많은 여학우들의 분노에 기반해서 여학생회가 여학우들과 함께 끈질기게 투쟁을 벌였던 여학생운동사에서는 큰 획을 긋는 시기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보은, 진관 무죄석방투쟁이 처음에는 무죄석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그리고 5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 없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7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바뀌어가면서 투쟁의 목표가 여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변화해가기 보다는 정세의 흐름만을 중심으로 투쟁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여학우 대중과는 어느 정도 괴리되는 투쟁이 진행되었다. 윤금이씨의 투쟁과 서여대협 차원의 기지촌 활동은 우리 여성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식민지 분단조국이라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구체적, 현실로써 느낄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다. 여학생운동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당위적인 과제로 세우면서도 그것을 자기 내용으로 받아 안고 있지 못하였으나 윤금이씨 투쟁 속에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반미자주통일 투쟁을 여학생운동의 과제로 삼게 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다.

◆ 93년부터 96년까지

이 시기에는 그 동안 계속 여학일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던 자주적 여학생회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이다. 93년에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14대 대선 패배 이후 결과에서 나타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성과와 한계를 총화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93년 제기되는 총적인 과제는 대중의식화를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대중조직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학생운동 또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고 학우들의 자주적인 삶을 높여주고 진정 학우들이 만들어 가는 대중 자치공간으로서의 학생회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진지한 모색 속에서 전대협의 전통을 계승 혁신하는데 백만 청춘의 조직으로써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총적 기치로 내걸게 되는데 1기 한총련이 건설되게 된다.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철저히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자 라는 기치를 들고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부문계열운동의 강화의 한 목소리가 전체운동 속에서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된다.

94년 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6기 전여대협(건)이 정식으로 한총련에 가입하게 되고 한총련 내부에서도 부계운동강화소위를 구성하여 이전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진일보하여 부계운동을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부문계열운동의 내용적인 강화에 대한 중심보다는 형식적인 계기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여학생회 자체에서도 자주적 여학생회론의 구체적인 정립,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좌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어느 해보다 활발해지고 6년 동안 전여대협 투쟁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힘있게 전여대협의 건설의 기치를 높게 들게 된다. 95년에는 전여대협 총회를 통해서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통일선봉대를 조직하여 7,8월 통일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모았으며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 산하에 여학생회 조직과 자주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 96년 말부터 99년까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96년, 97년은 김영삼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민중들의 자주권을 억압하는 정권에 항거하는 투쟁이 거세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김영삼 정권은 파쇼폭압기구를 동원하여 한총련 씨말리기-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96년 여름 연대항쟁에 참가한 학우들을 강제 연행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빨갱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97년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점으로 하여 한총련 탈퇴를 종용, 한총련 대의원인 핵심들을 연행하였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어 그 이후까지 계속 탄압을 하게 되었다.

여학생운동단위는 96년 연세대 항쟁가운데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투쟁을 법적 투쟁과 여론화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냈고 당시 김영삼 정권을 반여성,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김영삼 정권을 조기타도 하는 투쟁에 최선봉에서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 속에서 여학생운동을 하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와 구속을 받게 되었고 학생운동의 어려움 속에서 여학단위뿐 아니라 전체 학생운동단위까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97년 학생운동에 불어닥친 탄압과 여러 어려움들은 핵심의 구속, 학생운동에 대한 대역론적인 반감 등으로 학생운동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조직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상당히 컸고 전여대협 의장을 비롯한 핵심들의 구속으로 반년이상 공백과 시기를 겪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그저 시련과 피해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단위의 어려움 속에서 전체 운동까지 책임지면서 운동의 핵심으로서 단련된 많은 여학일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학생운동의 변혁운동적 성격을 확고하게 한 계기였으며 많은 사상적 혼란 속에서 굳건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핵심들을 중심으로 다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5적 과제를 도출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대협과 전여대협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많은 부계단위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전여대협만은 굳건히 자기자리를 지키고 전여대협 총회와 출범식, 통일선봉대를 꾸준히 치루어냈으며 중상회의 등 전여대협 회의구조 또한 안착화시켜 나갔다.

이기순, 허주연, 신차금, 전지나, 이정숙씨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에 선봉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에 있어서 300차 400차 수요시위를 성사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대중화, 전국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자주교류 및 연대사업도한 진일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기반의 열세는 꾸준히 극복해야하는 과제로 남아있고 역

량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후 전여대협을 대중조직답게 세워내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2. 부문계열운동에 관하여....

1. 들어가며

부계운동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부문계열운동을 학생운동 속에서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보지 못하고, 부문계열의 상대적인 특수성이 학생운동과 분리되는 것처럼 보기도 하였으며, 학생운동 속에서 가지는 학생부문계열운동의 독자적인 부문운동의 운동영역을 협소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운동 속에서 학생부문계열운동이 유기적으로 복무하며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통일적인 이해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문계열조직에게 상대적인 독자적 영역을 주체적으로 확보, 개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학생회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문건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2. 부문계열운동은 무엇인가?

① 부문계열운동의 성립과정

인간을 지배하는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투쟁과 활동들을 운동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로 계급, 계층별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경제적 생산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해관계로 계급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급, 계층별 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구분하며 각 운동영역은 전체 변혁운동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부분운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계급 계층별 운동 이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양태로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문계열운동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바로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각 계급 계층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에 따른 조직들을 묶어내고 항일무장투쟁에 나서게 한 것으로 반일부녀회, 천도교운동 등을 꾸려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함으로써 통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광범위한 부문계열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부문, 계열운동은 우리 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② 부문계열운동의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부문계열운동이란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의 또 다른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운동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근거하는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입니다.

학생부문운동은 학생운동 속에서 학생이면서 또 다른 사회적 처지가 중첩되면서, 또 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벌이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역할속에서 학생운동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학생운동 내에서의 일반적인 임무 외에 부문계열운동에서 제출하는 독자적인 임무는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학생조직에서는 골간 조직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부문조직이 자신의 독자적 내용으로 복무합니다.

3. 부문계열운동의 역할

① 학생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삶에 기반한 다종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학우들의 정서와 취향에 맞게 투쟁형태와 방식을 여러 가지로 구사해야 합니다. 특수적인 이해를 담보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투쟁형태를 아주 폭넓고 유연하게 내올 수 있습니다.

② 학생부문계열운동은 전체구국운동을 확대 강화합니다.

교대나 사범대 학우들은 전교조와, 여학생회는 여성단체와 연대 등 부문계열조직은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 애국적 사회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사회인으로서 학우대중을 민주적으로 의식화, 조직화합니다. 또한 사회진출의 의미뿐 아니라 대중운동으로서의 자신들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면서 사회운동에도 자극을 주며 관련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구국운동을 한층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③ 각 지역, 지구, 대학간의 차이를 극복해내는데 부문계열운동이 그 일조를 합니다.

본래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별로 고르게 운동이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문계열운동은 이러한 역량의 차별성을 각 지역과, 지구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극복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86년 1대

86년 11대

3. 동아대 여학생운동 약평

4주

89년 총여학생회는 10개 단대 여학생회와 함께 시작했다. 여학우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여학우들의 소극성, 의존성을 깨뜨리기 위해 일년동안 거듭나기를 시작했다.

새내기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10개 단대 여학생회와 치러낸 여성학교 그리고 여성학교의 성과점을 이어서 여름방학 때 진행된 남녀공학이 있다. 이것은 여성노동자의 문제, 학교 교육에서의 성차별등 사회와 학교에서의 성모순이 부당함을 말했다.

90년 전여대협(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각 지역 여대협(부경여대협, 남여대협 등)의 건설로상층 단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해 8월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에 각 단대 여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장이 참가하여 건설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91년 민족동아 여학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여학우들의 취업문제 심포지움, 여성영화 토론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벌여낸다. 단대 여학생회는 각각 작은 여성주간을 준비하여 새내기를 위주로 성폭행에 관한 연극을 했다.

92년 의붓아버지에게 몇 년 동안 성폭행, 강간을 당해온 김보은, 김진관 석방투쟁을 대대적으로 알려내

게 되고 사회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면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 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력을 추방시켜 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은 전대협과의 연대투쟁으로 백만학도의 삶을 책임지는 전대협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93년 92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매춘활동을 하던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자궁에 콜라병이 꽂히고 항문에 우산살이 박힌 채 살해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총여학생회, 각 단대 여학생회, 골간 학생회 차원의 힘찬 투쟁을 벌였다.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함께 투쟁했던 많은 여성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가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된다.

학원에서는 여대생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대생 취업의 현실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2

94년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아버지를 살해한 인제대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을 벌여내면서 내 옆에 있는 학우의 아픔을 나누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전의 총여학생회 사업이었던 남녀공학을 9월에 개최하여 학우들에게 올바른 성인식과 인간의 존엄을 일깨우면서 학원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95년 총여학생회의 내용성을 강화, 발전시키는 한해였다. 방학중 타 지역 여대협에 대한 조사사업을 토대로 탁아사업을 중심으로 연대사업부를 강화하고 여성기획시리즈를 격주에 한번씩 휴게실과 중앙 대자보에 선전을 하였다. 각 단대 여학생 일꾼이 모여 함께 만든 여학생 일꾼 힘다지기 대회를 첫 사업으로 4-5월에는 학내 성폭력 퇴치와 외세문화 척결을 위한 '건강한 대학촌 만들기'를 실시하여 새내기 자원봉사단을 조직화하여 학원내에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정립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또한 여대생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여학우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진출에 있어서의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였다.

96년 여학단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잡았던 것이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이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각 지역별로 일본 영사관 항의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폭넓은 투쟁을 일구어냈다. 여름에는 조국통일 투쟁과 함께 제2의 정신대인 기지촌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일구어 갔다. 8월 연세대 항쟁 당시 여학우들에게 성추행을 한 반민중 반여성정권인 김영삼정권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97년 민족동아에서 전여대협 의장을 배출하면서 이남사회의 여대생 대중조직인 전여대협의 핵심대학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총여학생회 내의 조직적인 문제로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2학기때 휴학을 하게 되고 일꾼들도 하나 둘 조직을 떠나는 한계가 있었다. 전여대협 의장 역시 정권의 탄압을 극복하지 못하고 2학기 때는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조직적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농활에 있어서 틀이 마련되게 되고, 여성농민반, 어린이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형을 만들면서 농활에 있어서 분반활동의 모범이 되었다.

98년 97년의 조직적인 한계를 평가하면서 총여학생회 내에 상집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중앙 집행력을 높이면서 대중사업을 전개하는 데 낮은 수준으로나마 정형을 창출하게 된다. 13대 공대여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하면서 기층조직을 건설, 강화할 것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는 한해였다. 민족동아 처음으로 동두천에서 기지촌 활동을 벌였었고, 농활에서 분반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총여학생회에서 농활수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갔다.

99년 미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그 어느 해보다도 자주민중과 제국주의의 대결이 첨

예화 되었던 해였다. 새해 벽두부터 반미반전을 외치며 시민들을 만나가면서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 음모를 조금씩 분쇄시켜 냈고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10차 범민족대회를 거족적으로 성사해냈다. 민족동아에서 비록 자주적 총학생회를 건설하지는 못했지만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갔다.

동아대 총여학생회는 전체 여학생운동의 핵심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95년 부경여대협 부의장, 96년 부경여대협 의장, 97년 전여대협 의장, 99년 부경여대협의장을 힘있게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여학생운동의 핵심대학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4. 전여대협 지도력 구축의 중요성

여성문제는 인간 개별 개별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지배역사와의 연동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당사회의 조건에 따라 여성해방을 달성해 가는 과정 또한 각기 다양하다. 이남사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 그리고 유교적 문화와 결합된 가부장제를 그 억압의 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꿰뚫고 사람의 자주성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경로를 밝혀나가야 한다.

따라서 여성억압의 근본모순을 정확히 분석하고 50만 여학우, 2천만 여성의 해방의 경로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여학생운동을 이끌어내는 상층조직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문계열운동은 전체운동에 복무하면서 우리 운동을 풍부화하고 대중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문계열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이 사회의 근본모순을 등한시하고 전문성만 중시하여 눈앞의 요구에만 이끌려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모순으로부터 부문운동이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운동만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된다.

그만큼 부문계열운동은 전체 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을 올바르게 연결시키는 고리를 잘 찾아야 하고 전문성으로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 전체 운동에 복무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전체 운동속에서 고리를 잘 찾아 부계운동의 상대적 독자성을 잘 살리기 위해 상층조직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은 운동대중화의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여학생 부문계열운동의 전국조직인 전여대협 지도력구축을 위해 동아대에 제기가 들어온 것에 있어, 그리고 전체 운동의 대중화와 강화 발전에 있어 여학생운동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부족한 문서이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후에라도 궁금한 부분이나 제기할 부분을 사소한 것이라도 많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소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성의있게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토론해봅시다.

1. 단위에서 총여학생회에 드는 생각이나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봅시다.
2. 전여대협 지도력 구축에 있어 원칙적인 관점과 동아대의 입장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3. 전여대협 지도력 구축을 동아대에서 받는 안는다면 나서는 고민과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민족동아 16대 자주적 총여학생회